

삼성물산, 화학제품 가격하락 타격

2005년 상사부문 매출 3.6% 감소 ... 전체 순이익은 819억원으로 증가

삼성물산은 2005년 매출액이 9조6599억원으로 364억원(0.4%) 줄었지만 순이익은 819억원으로 48억원(6.2%) 늘었다고 1월3일 공시했다.

영업이익은 2621억원으로 52억원(2.0%) 증가했으며, 경상이익은 홍콩법인 선물거래의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1468억원으로 323억원(28.2%) 늘었다.

부문별로는 건설부문 매출이 기흥, 화성 반도체 공장 공급 등에 힘입어 5조198억원으로 1381억원(2.8%) 늘었고 영업이익은 2천522억원으로 49억원(2.0%) 증가했다.

상사부문은 화학제품 가격하락 등의 여향으로 매출이 4조6401억원으로 1745억원(3.6%) 줄었고 영업이익은 99억원으로 3억원(3.1%) 증가하는데 그쳤다.

삼성물산은 2005년 4/4분기 매출액이 2조554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.9%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752억원으로 20.3%, 순이익은 156억원으로 28.4% 줄었다고 밝혔다.

삼성물산은 건설부문의 총 수주물량 잔고가 24조9094억원에 달해 5년간 일감을 확보하고 있으며 상사부문도 고수익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했다.

<화학저널 2006/02/06>